

조선반도에서의 Vories 건축활동의 과반수 이상은 기독교계의 학교 건축계획의 참여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전 50주년 사업으로 1935년에 건축된 교사계획은 설계착수시기는 1917년부터 시작되어 1932년에 본격화되었다.

강윤은 1935년 이화여전 신축을 위하여 당시 서울시 종로 기독교 성서회관에 위치한 Vories건축사무소 경성출장소의 소장으로 파견되었으며 이곳에서 8·15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로부터 15일후인 1945년 9월 1일자로 발족한 대한건축학회의 산실은 바로 Vories의 출장소였던 강윤의 건축설계사무소였다. 그때 그는 학회창립에 기여한 중요한 사람중의 한사람이었다. 대한건축학회가 8·15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발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1922년 창립 이래 운영하여 온 조선건축회를 해산하고 재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축가 (7) - 강 윤 완

Korean Architects - Kang Yoon

해방후 작품활동

김승제 /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ung-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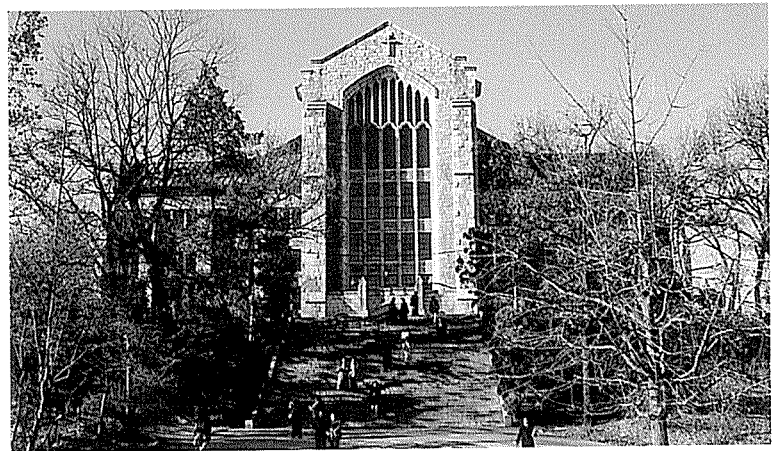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대한건축학회 40년사」 개관에 8·15해방 이전에 건축가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박길룡, 김세연, 박인준, 박동진, 이용재 그리고 강윤의 순으로 6명의 경력을 간결히 소개하고 있다. 강윤에 대한 내용을 동지 페이지 36, 76에서 옮기면, “강윤은 일본에 본사를 둔

미국인 Vories건축설계사무소에 23년간 근무하다가 이화여자전문학교 본관과 음악당 신축공사때 귀국하여 태화관 설계감리 등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해방후 오늘의 대한건축학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모임을 바로 종로 기독교 성서회관인 Vories건축설계사무소였던 ‘강윤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졌었다. 그 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金世演
부 단 장 : 金允基, 朴仁俊
상 무 이 사 : 劉相夏



이화여대 대강당

총무부이사 : 李元植, 姜允, 金東洙
 연구부이사 : 金舜河, 金在哲, 金熙春
 업무부이사 : 張然采, 李天承, 慎武成
 평 의 원 : 孫亨淳, 李龍在, 金正秀, 鄭德鉉, 鄭東錫,
 李均相, 徐載運, 金鍾敏, 金光鉉, 俞元濬,
 張起仁, 全昌日, 李漢哲, 田昌沃, 林榮藏

※ 현재는 張起仁 선생만이 생존하고 계심

8·15 해방후 귀국한 강운은 그가 근무하였던 경성출장소 그 자리에 자신의 설계사무소인 '강운건축설계사무소'을 개설하고 소장이 된다.

그리고 그의 작품으로는 6·25이후인 1955년에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이화여대의 석조대강당 설계에 이어서 1956년에 서울 수유리의 한국신학대학 본관, 흑석동의 중앙대학 본관등의 작품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미 그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의 작품 성향은 Vories사무소 건축수업을 통하여 익힌 고전주의 양식의 사용을 주로 하는 서양절충식의 양식건축이 대부분이었으나 해방후의 건축세계는 합리주의, 기능주의를 대표로 하는 근대건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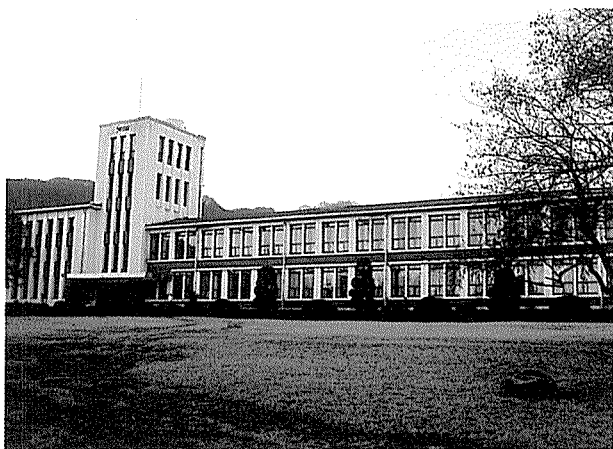
1955년 이화여대의 대강당과 서울 수유리의 한국신학대학 본관을 설계할 때,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과 당시 부통령이며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함태영선생은 의뢰하는 시설의 규모와 기능의 기본사항만 전달하였을 뿐으로 설계 전반에 대하여는 강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도 강운의 청구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인간적인 일의 관계는 강운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서울의 조형건축사무소의 李汶祚 선생은 大阪高等工學院(現大阪工業大學) 1942년 졸업생이다. 그는 일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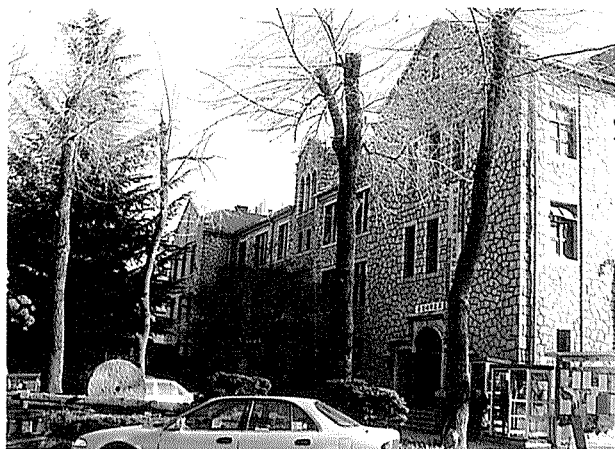
서 소학교에도 갈 수 없을만큼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이웃의 日人 小學校 女교사가 私費로 李汶祚 이동을 小學校에 입학, 졸업시키고, 이어서 5년제인 大阪工藝學校와 大阪高等工學院 建築科 3년제를 마칠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조건은 훗날 성공하게 됐을 때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미 90대의 노파가 된 일본 여교사와의 두분의 交分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1980년 고인이 되신 한양대학교의 박학재 교수도 李汶祚 선생과 이 학교의 입학동기였으나 박학재 선생은 중퇴하였다.

고국에 돌아온 강운의 작품에 대한 자료는 상기 언급된 건물 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종로구 팔판동에 강운 자신이 설계한 그의 자택은 순수 한옥으로 설계되어 지금도 남아있다. 일반적인 한옥 평면구조의 건물이지만 다만 대들보가 뚜렷한 대청마루 구석에 Fire Place를 둔 것이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외색은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Fire Place는 Vories의 자택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듯 하다.

현재 공주에는 강운의 영명학교 동기동창생이며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한 양재순씨가 1993년 당시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양재순씨는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의전 출신으로 졸업후 고향 공주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는 1928년 공주 제일교회 옆에 공제위원을 개업하였는데, 이 병원은 30평 규모의 목조단층건물로 강운이 설계하였다. 지금도 그 의원건물은 남아있지만 그곳은 이미 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답사한 1993년 7월 당시에는 미술전공의 부부가 작업실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한국신학대학 본관



중앙대학교 본관



Vories 자택내부 Fire Place

1937년 출판된 Vories작품집의 머리말에는 Vories의 동양에서의 건축활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이래 나도 이중의 한사람으로 일본에 온 초기에 서양에서 동양을 처음 방문한 건축가는 누구나

세계적인 질병과 같은 것에 잘 걸리는 어떤 풍조가 있었다.

그것은 새시대의 필요성과 요망에 답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의 특유의 아름다운 민족적인 건축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든가 그 좋은 것을 인식하고 응용할 것을 강요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져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 藥에 당겨서 문혀 버릴것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양식을 찾으려는 과정-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외국인 건축가에게 먹기좋은 약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대건축에 고대의 일본건축양식을 적용시킨다는 일의 선봉이라는 것은 일본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건축가는 일본의 젊은 건축가를 위하여 서양건축의 해설자이며 그 응용의 협력자, 또는 살아있는 참고서로서 조심스럽게 무리가 없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Vories가 조선에서의 작품활동에 있어 강운의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실제로 Vories는 기본계획만 일본에서 실시하고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은 조선 현지에서 실시시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화여전의 경우는 그 공사가 대규모였던 관계로 강운이 출장소 소장으로서 파견된 셈이 된다.

Vories의 조선에서의 작품은 세브란스병원, 연희전문, 이화여전, 서울YMCA, 동경의 조선 YMCA, 라남교회, 부산진교회, 평양광성중학교, 함흥영생중학교, 대구계성학교, 개성송도고등학교 등 166점이 있다. 물론 이의 적지 않은 수가 강운의 손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가족사향

1928년 강운은 8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Vories가 설계



팔판동 자택



공제의원

한 서울 貞洞教會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신부는 명성있는 목사의 딸이었다. 그들의 신방은 Vories宅의 이웃에 자리잡았다. 강운은 仁根(1931, 在美土木기술자), 俊根(1933, 亡), 信根(1936, 재미건축가)의 3男을 두었으나 그는 2男과 부인을 저승길에 앞세웠다.

1974년 흐리고 추운 이른 봄날, 서울 종로 화신뒤의 붉은 벽돌조 중앙감리교회에서 강운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결어

우리나라 근대서양건축의 도입과정에서 건축가 강운에 초점을 두었던 이 조사연구가 기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강운이 건축활동의 무대가 주로 일본이었던 관계로 자료수집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강운의 건축행적에 관한 추적과정에서 그의 스승인 Vories를 찾았다. 동시에 강운이 3·1독립만세의 주동학생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형 6월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예견하지 못한 발견이다. 이 일을 계기로 영명학교의 William교장의 주선으로 강운과 Vories가 이어진 경위도 상세하게 밝혀졌다.

조선의 침략자인 초대총독 寺內正毅의 요청에 의해 독일인 Lalande는 1911년 조선총독부 청사설계를 착수한다. 1908년 미국인 Vories는 Lalande가 설계한 일본 京都 Y.M.C.A의 현장감독을 계기로 일본에서 건축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리고 강운은 1920년 Vories건축사무소에 입소하여 해방이 되기까지 25년간 Vories건축사무소 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는다.

오늘날 건축가로서의 강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항일지사로서 강운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그

중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흐려져 가는 그에 관한 기록을 해두어야겠다는 이 조사작업은 Vories와 강운의 만남의 확인까지가 큰 고비였다. 그리고 일본 大阪藝術大學에서 조선반도의 73점의 건축설계원도와 접하고 그 도면에서 Y. K, 혹은 Y. Kang이라는 서명을 보았을 때와 강운의 영명동창생이며 1919년 8월 3·1독립만세사건으로 함께 형을 받았던 의사 양재순씨를 통하여 정부기록보관소 부산지소에서 강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했을때 필자는 스스로 숙연하여지기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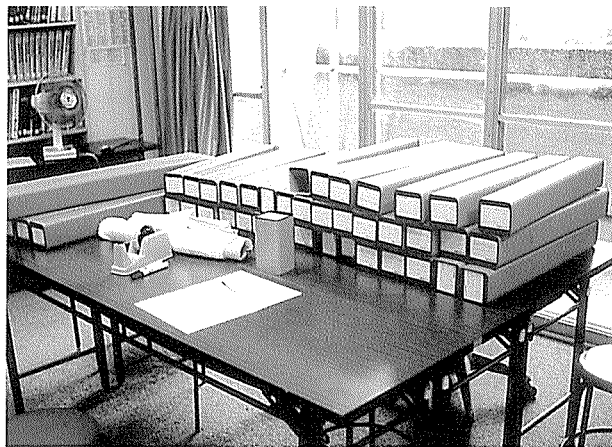
올해는 Vories건축사무소가 개설된지 89년째이고 강운이 Vories와 이어진지 77년 또 그가 세상을 떠난지 22년이 되는 해이다. 그가 설계한 이 땅의 많은 건축들이 전쟁과 세파에 시달려 소실 또는 파괴되어 폐옥이 되는 등 남아있는 건물일지라도 그 기능마저 변하였을 터이니 지금은 몇 점이나 옛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Vories의 건축작품 1,500여점중 설계원도는 현재 일본 大阪藝術大學에 약 800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필자가 大阪藝術大學 山形政昭 교수와 함께 직접 분류·정리한 바 조선반도의 작품은 73점, 420면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도입과정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A3판 크기로 복사하여 1990년 10월에 제본하여 남겨두었다. 이제 그의 건축을 사랑하고 아끼던 많은 사람도 거의 떠났다. 후일을 위하여 이 조사연구의 보완과 그 건축들의 실태조사가 있기를 바란다.

— 이 조사연구는 吉田希夫 牧師内外, 作家 江南良三氏, 강운의 동료였던 西井一良氏, 隈元周輔씨, 關西大學 藤田允 教授, 千葉大學 寺門征男 教授, 神戸市の 小川清氏, 大阪藝術大學 山形政昭 教授, 그리고 金眞一 漢陽大學 名譽教授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팔판동 자택 내부 Fire Place



大阪藝術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Vories의 조선반도 작품설계원도